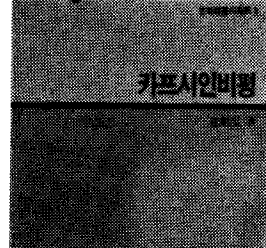


실종된 문학사의 재조명



김재홍 著
'카프 시인비평'

반세기만에 걸친 분단현실이 문학연구에 작용한 의중은 실로 완강한 것이어서, 1988년 7월 남·북 문학인에 대한 해금조치가 있기 전까지 이들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된 모습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었다. 홍명희를 비롯한 다섯 사람의 문인이 이 조처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으나, 인위적으로 강제된 독이 무너지자 이 방면에 있어서의 논의와 연구는 백화제방의 성시를 이룬 감이 있었고, 카프와 해방공간에 프로문학은 당연히 그 중심부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전에 본고 문리과대학의 김재홍 교수가 삼재한 '카프 시인비평'은 이 시기 시인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지금까지의 전방적인 연구경향에 비추어 볼 때 몇가지 의미있는 관점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주목을 값할 만하다.

우선 프로시인들에 대한 연구가 대개 비평사나 문단사 중심으로 시도되었음에 반하여, 이 저서에서는 작품의 구체적 세부를 바탕으로 섬세하고 치밀한 분석이 수반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으로써 이들의 시가 반외세 민족해방과 반봉건 계급해방의 가치를 들고 비판적 현실의식을 드러내는 한편, 그 이념적 측면이 지나치게 도식화되고 과장됨으로써 역동적인 실천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객관적인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음으로 시종일관 시인의 내면의식이 움켜지고 있는 궤적을 추적하여 그 정신사적 행로를 탐색하면서,

카프문학의 계급·예술적 측면 고찰

당대 현실과의 상관성을 명료하게 추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분적으로 형식이나 기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되, 이러한 측면은 1980년대 후반 이래 그의 '한국 현대시인연구' '현대시와 열린 정신' '현대시와 역사적식' 등과 같은 저서에서 볼 수 있는 바, 현대시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면서 각기의 시대적 성격을 균형있게 정초하려는 작업의 연장선상에 놓인 다.

그리하여 계급성과 예술성의 두 측면을 아울러 검토하면서 이 두 항목의 조화로운 만남이라는 가능대를 독자들의 손에 쥐어준다. 예컨대 박 팔양의 경우, 머리는 계급의식에 가슴은 예술의식에 침윤되어 있음으로써 민족주의에 의한 불구의 시적의 형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모습이 바로 당대에 이 땅의 프로시사가 지닌 일반적 한계라는 보편적 해석으로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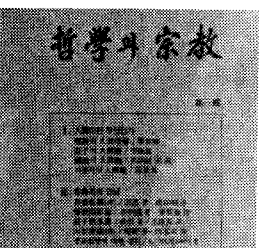
또한 프로시에 대한 분석 및 정리 가 그들만의 개별적인 의미구명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단상황의 극복에 내포적 역할을 공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문학을 환기시킨 다.

말미의 '북한 시의 한 고찰'은 이러한 의도와 더불어 카프와 북한문학의 현재를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는데, 실존론 문화사의 복원과 함께 남북간의 문화통합을 향한 전초전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말에서 해방공간에 가로놓인 유원희·김창숙·박세영·박팔양·김해강·임화·권환의 시를 문헌자료 속에서 찾아내는 일이나 생애사에 대한 확인도 적지않은 끈기를 요구하는 일이며, 이저서 속에 담긴 노고를 짐작할 수 있다.

김 중 회
< 문리대교수·문학평론가 >

현대철학과 古典의 만남



남경영 著
'철학과 종교' 제1집

사회가 다원화 될 수록 고전은 빛나며, 새로운 것에도 은 시선이 집 중될 때일수록 전통문화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고전은 방향을 잡아주는 등대와 같고, 전통문화는 새로 창조되는 문화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부정기 간헐물로 근대 발간된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자못 기대되는 바가 많다.

창간호의 내용을 보면 제1부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공통주제 아래 유교, 노장, 불교, 카톨릭의 입장에서 각각 금강태(서울대), 이강수(연세대), 윤병식(동국대), 남경영(경희대)교수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을 담당했다. 제2부 '고전과의 만남'에서는 유불도(儒佛道)의 전통사상과 현대철학들 여러 분야에서 각각 인간의 본질'에 답하는 대표적인 고전의 일부를 번역, 주석을 달았다.

먼저 제1부에서는 단순히 서로 다른 분야의 입장에서 답한 것을 모은 것이 아니고, 공통되는 물음의 틀 (framework)을 짜고 되도록 그 틀을 공유하면서 대답하려 고심한 결과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된 틀은 넓게는 인간의 현상'과 '바람직한 인간'의 두가지라 하겠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기원과 실상, 당위적 인간과 인간의 완성, 그리고 이를 통해 본 인간의 본질들의 함축에 각각의 입장에서 해답을 모색해 본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제2부의 내용을 소개하면, 유학을 연구하는 성백효선생이 한말(韓末)의 성리학자 전우의 '간재사고' 중 서간론 일부를 번역했고, 이강수교수는 장자의 '추수편'을, 남경영교수는 용수의 '대지도론' 중 일부를, 그리고 황필호(동국대)교수는 비트겐슈타인의 '종교신앙에 대한 강의'를 각각 번역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제1부가 이 책을

전통사상 재음미 통한 인간본질 탐구

집필한 '철학비교연구회'의 의욕적 작업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했으나 다음엔 인간의 '욕망'을 주제로 다루겠다고 후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에게 제기되는 주제를 택하여 고전사상의 주된 몇가지 입장에서 그 해답을 모색해 보고, 다른 한편 입장을 상호간에 대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통된 작업을 안에서 협동연구를 함으로써 전통의 창조적 재음미를 시도한 것이 이 목지의 주된 목표로 보인다.

이제 평가 나름대로 느낀 아쉬움이랄까 욕심을 말해보고 싶다. 우선, 이왕에 대표적인 전통의 입장에서 창조적 대화를 시도한다면 실제로 필자들이 직접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이해 주는 '대담'을 추가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문화적 전통이 상충하는 현실에서 그러한 적극성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안 내하는, 혹은 적어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결여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고전사상의 창조적 계승'이라면 이쪽, 곧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는 일은 또한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입자가 확실해야 시각도 확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첫걸음을 시작한 창간호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겠다.

김 수 중
< 문리대교수·중국철학 >



명예기자석은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2~4매
◇보낼곳 : 서울 <본사편집실>, 수원 <공과대학 614호>

전면 수입개방의 위기에 놓인 농촌 당면한 농촌현실 공유하는 농활되어야

80년 이후부터 더욱 가속화되는 농촌현실에 대한 수입개방이 90년대에는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전제로한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이라는 농업정책이 3월 12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농민들의 해탈에 있어 반농민적인 민자당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농민 농업현실속에서 진행되는 자주경회 하계 농촌활동은 첫째, 전면적인 수입개방

앞둔 상황에서 반미투쟁을 적극 적으로 일구어 내야 한다. 이는 수입개방의 폭풍을 완벽하게 조사하고 그 수입개방의 폭풍이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농촌 농업현실의 근원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전해 내는 것과 민자당 배후조정자로서의 미국을 폭로 해내야 할 것이다.

둘째, 더욱더 몰락해 가는 농촌의 현실은 바로 민자당의 반 농민적 본질에 있으므로 민자당

의 총체적인 내용을 선전해내고 반민자당 투쟁전선에 농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세째, 전면 개방 자유왕래를 기본 내용으로 자주통일의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우선 자주경회의 몇몇 학과에서 방북교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과는 자신들이 준비 하고 있는 자주적 교류에 대해 농민들과 함께 공유해가는 과정 이 필요하고 농민과 통일이라는 관련성에 대해서 북한의 여농민 소개 남북한 농작물 교류의 필요성 제기등 농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기반한 자주통일의식을 확산시켜 내야 한다.

이제 한달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농촌활동 준비는 우선 화우들과 농촌, 농업문제를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 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기간 농촌활동의 과정에 대한 선전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활동의 깊이와 폭은 농촌활동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교육정도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김 기 수
< 정경대무역 >

'노론자' 빠진 선전용 싸구려 매각

최근 신문지상을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소식들은 자기 몸 하나를 땅 한평을 매수한 대다수 민중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더 이상의 토지가 돈벌이의 대상으로 방치될 수 없다는 절대절망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독점 재벌의 투기놀음을 방조 내지는 부추켜온 파쇼 정권도 사태가 심심찮은 지경에까지 이르자 현재까지 전세·월세값 비싼으로 약 20명 재산' 등을 접하면서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지난 5월 8일 '부동산 투기억제 및 물가안정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5월 11일에는 은 국민의 자탄을 한 몸에 받 는 부동산 투기꾼 168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전명하였다.

그것은 정부가 49개 재벌 기업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라는 지시에 이은, 10대 그룹이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1천5백6만평을 매각하겠다는 발표로 구체화되었으며, 이것은 이들 그룹 총보유 부동산 (89년말 현재 토지 8천5백38만 7백90평)의 18.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믿을 수 없는 역대 정권의 양태속에서 우리에게 '혹시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하지만 그 실효를 알아보면 첫째, 이들이 내놓은 땅은 토 지규모에 비해 희박한 환산하면 평균 2%의 수준도 못되는 대국민 선전용의 싸구려 매각이라는 것이다.

둘째, 매각대상으로 내놓은 땅들은 대부분 허가가 나지않

은 땅이거나 내용아도 실사할 수 없는 돌산으로 '노론자'는 빠진 빈집장'일 뿐이다.

세째, 그동안 처리 불가능하

마당배워
신 준 선
< 정의 > 3>

국민 눈가리기 작전

투기억제 정책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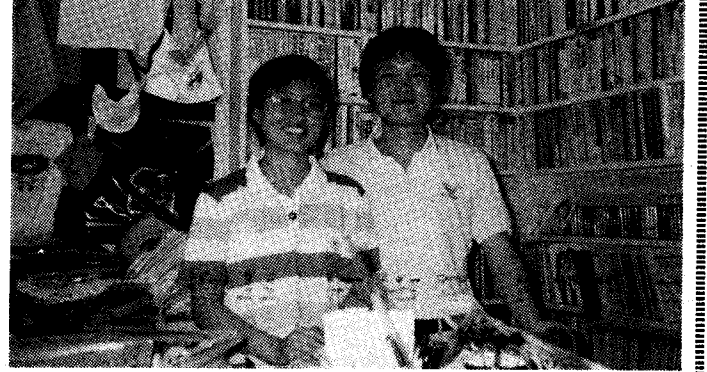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투기의 문제는 경제구조 자체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없이 임시방편의 조치로서는 결국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해결을 모색할 것인가? 그것은 그리 복잡한 문제만은 아니다. 민자당, 결성 이후 폐지된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하는 것이며, 재벌들에게 골프용토지로 허가해준 45만여평을 환수하고 땅값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89년 현재 84조원)중 약 3%만 부과해 두 서민용 영구임대주택 1백만호 건설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정권의 허구적인 경제대책은 정경유착의 어쩔수 없는 상황들, 또다시 전세금 20만원 인상은 우리의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재벌들의 투기자금은 압수되어야 하며 이로써 서민용 영구 임대주택은 민중의 이름으로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 해직 교사 나승인, 조미영 부부를 만나...



“교육이란 단어 자체만으로 참된 것임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런데 굳이 ‘참교육’이라 지칭하는 것이 모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모순을 반영하는 한 단면입니다.”라며 나승인 전교조 해직교사는 새벽부터 무거운 가방을 메고 등교하여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과, 실현실, 상담실 등의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안타까운 우리교육현실을 이야기한다.

서울중공동에 소재한 대원고등학교 맞은편에서 3명 남짓한 ‘책마루’이라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나승인은 81년 본교국문과에 입학하여 89년 3월 대원고등학교 국어교사로 발령을 받았으나 89년 12월 전교조 관련교사로 해직되었다.

“해직된 후 과연 무엇을 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생각 끝에 현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학생들과 자주 접할 수 있다는 것과 학교 앞에 일반교양서점이 없는 것을 고려해 보니 서점이 가장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대원중·고등학교 앞에 참교육을 주제로 취급하는 서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 했다.

“시작한지 2달밖에 되지 않아

자주 접할 수 있다는 것과 학교 앞에 일반교양서점이 없는 것을 고려해 보니 서점이 가장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대원중·고등학교 앞에 참교육을 주제로 취급하는 서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 했다.

“시작한지 2달밖에 되지 않아

자주 접할 수 있다는 것과 학교 앞에 일반교양서점이 없는 것을 고려해 보니 서점이 가장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대원중·고등학교 앞에 참교육을 주제로 취급하는 서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 했다.

“시작한지 2달밖에 되지 않아

“교단에 서서 제자들의 맑은 눈망울을 거짓없이 바라볼 수 있는 참교육 그날을 위해...”

자녀 제아내나 아직은 서둘러요. 그러나 점차 학생들의 반응도 좋아지고 있어 힘을 얻고 있죠.”라고 말하면서 나승인은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부인을 힐끗 쳐다보았다.

작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결성된 후 전교조관련교사 탈퇴까지 시한일인 7월15일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나승인은 그때

의 심정을 “동료교사들이 해직되려는 긴박한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미안했어요. 저나 제아내나 장신없이 결혼식을 치른것 같아요.”라고 회상한다.

해직된 남편과 같이 책방을 운영하는데 있어 크게 힘든점은 없

“지금 우리가 해직됐다고 해서 영원히 교단을 떠난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육, 즉 참교육을 위해 잠시 다른 공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며 힘있게 말하는 나승인은 해직교사 복직을 위해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서명운동, 복직촉구성명서를 신문에 게재하는등 전교조 서울지부 동북부사업지구장으로

1990년도 대학생 하계연수 안내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을 근간으로 66년 동안 전신하게 성장해 온 삼양사는 모든 삼양가족이 깊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참다운 기업문화를 이루어 왔으며, 섬유, 제당, 사료, 기계부문에서 꾸준한 연구개발로 쌓아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석유화학, 유전공학 등의 첨단 산업에 진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하계 방학기간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대학생 하계 연수과정			
실시기간	모집인원	응모자격	응모기간
1990. 7. 30(월) ~ 8. 4(토) 1주간	70명	4년제 정규대학 3학년 재학중인 자로서 군필자 또는 병역의무 면제자('92. 2월 졸업예정자)	'90. 7. 4(수) ~ 7. 14(토) 토요일은 13: 00까지
■응모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당사 총무부 인사과 (성적증명서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제출요망)			
■합격자 발표			
* 1990. 7. 18(수) 15: 00 본사 1층 로비(전화문의 가능)			
■연수과정 프로그램			
* 삼양사그룹소개, 공장견학, 그룹별 사색연구 및 발표, 비즈니스게임, 교양강좌, 일제강조성훈련, 명승지 관광, 단합대회 등 실시 예정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참가 답례금, 고급기념품 지급 및 연수성적 우수자에게 '92년 대졸 채용 전형상의 혜택 부여 예정			

대학생 어학 연수			
실시기간	모집인원	응모자격	응모기간
1990. 7. 23(월) ~ 8. 18(토)	40명	4년제 정규대학 재학중인 자	'90. 7. 4(수) ~ 7. 14(토) 토요일은 13: 00까지
■응모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당사 총무부 인사과 (반명함판 사진 1매 및 학생증 사본 1매 제출요망)			
■합격자 발표			
* 1990. 7. 18(수) 15: 00 본사 1층 로비(전화문의 가능)			
■어학연수 프로그램			
* 영어: 회화중심(중급, 고급과정) 외국인 강사 초빙 예정			
■어학연수 강의 일정			
* 매주 월, 수, 금 오전 10: 00~11: 30			
* 우수 수료자 3명 시상 및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지급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총무부 인사과로 전화 연락 요망(☎ 740-7155~7)			



주식회사 삼양사(化纖, 雪糖, 飼料, 水産, 精密化學) * 삼양중주식회사 * 선일도당주식회사 *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 삼양화학주식회사 * 신한제분주식회사 * 양명회 * 수당장학회